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6월 5일(금)

(음력 윤 4월 14일)

Пятница

5 июня 2020г.

№ 22(11688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휴식공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취재: 이에식 기자)

7월 1일, 개헌안 표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월 1일에 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전 러시아인 표결 시행 명령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안 승인 문제로 전 러시아 표결 처리 날짜를 2020년 7월 1일로 결정한 데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의 확산과 관련 주민들의 방역 안전 보장의 필요성과 산적한 방역 상황을 고려함에 있다."고 대통령 홍보실이 공지한 지시안에 적시돼 있다. 오는 7월 1일은 휴일로 정한다고 헌법개정 실무팀의 과벨 크라세니코브 공동대표가 전했다.

러시아 연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엘라 팜필로와 위원장은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투표일까지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수를 '0'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팍스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블라예브 중앙선거관리위원 부위원장은 유권자들은 언제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조기 투표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유권자들은 평소처럼 밤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투표부스, 투표사무소, 봉인된 투표함 등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투표 시 유권자들이 한 시간에 8명이 투표하도록 하고 유권자를 비롯한 감독관과 언론인들 모두에게 투표소에서 방역 마스크와 장갑, 일회용 펜을 지급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들에게는 코로나19를 검사할 예정이다. 투표는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가능하나 우체국 이용은 없다. 재택 투표는 집을 두고 나올 수 없는 형편의 시민들만이 할 수 있는데 원격 전자투표는 이런 방식을 원하는 주 중 2,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준비도 확증할 예정이다. 이런 지역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찍이 모스크바 일부 지역에서 진행이 언급되었다.

전 러시아적 표결안은 '당신은 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가?'이다.

이 헌법에는 일부 최저 근로임금이 근로 능력을 지닌 주민들의 최저 생계비보다 낮을 수 없으며 연금은 매년 지표화해야 하고 타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영주권자는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다.

개정안 중 또 하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0'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의 활동을 위해 재설정한다고 한다. 만약 이런 임기 제한을 해제하면 잠재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사할린주 아동 캠프 및 시설들 가동

6월1일, 아동보호의 날 사할린주에서는 여름 건강 개선 캠페인이 시작됐다.

학교와 문화회관 및 스포츠 시설들에서 여름 행사장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홈스크 지역 '차이카'캠프도 첫 아이들을 접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아동보호에 날에 올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이 제7호 학교를 방문해 여름시즌 개막을 알리며 동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아동들에게 기념일을 축하했다.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시야 키테와도 여름 건강 개선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할린주의 전례없는 조치에 의미를 부여했다.

6월 1일부터 62개 여름 캠프지에서 학생들을 접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시설을 찾아가고, 주내에서 4545명이 시설을 이용할 예정으로 교육부는 최소 45%의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보내게 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3면에 계속)

단신

6월 24일은 휴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 기념식을 맞아 6월 24일 군 열병식과 화포 발사에 관한 지시안에 서명하였다. 이 지시안의 통과로 6월24일은 유급 휴일이 된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붉은 광장과 러시아 내 각 도시에서는 군장비를 동원한 군 열병식이 개최되며 22시에는 포병 열병식이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9일에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나 대통령은 '추후에도 대대적으로 기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 9일 전승절에는 각 도시에서 전투기가 기념 비행을 펼쳤고 모스크바에서는 승전 75주년 맞이 불꽃놀이 축제가 열렸다. 이번 주에 대통령은 6월24일에 열병식을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은 1945년 역사적인 승리의 군 열병식이 진행되었던 날이다.

사할린주에 연어잡이 시작

6월 1일 사할린 지역에 정기 연어 어획기가 시작되었다.

연어산업에 사할린 남서지역의 기업들이 제일 먼저 어획에 나섰다.

이 기업들은 포기비콧에서 크릴 리온곶까지 해역에서 어획 허가권을 가진 홈스크, 네벨스크, 토마리, 우글레고르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의 업체들이다.

태평양 연어 어획산업은 7월5일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은 사할린주 기상청 어류 조정위원회가 이 어종의 실제적인 접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사할린 남서지역에 올해 허가된 송어 어획량은 109만 1479톤 연어는 77만 616톤이다.

드미트리 류브치노브, 홈스크 시장으로 선출

지난 5월 29일 홈스크 시지구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을 선출하는 제28회 지방 정기총회가 진행된 가운데 드미트리 류브치노브가 선출되었다.

선거위원회는 3명의 후보자들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 중 홈스크 의회의 안드레이 예르마코프 의원과 홈스크 행정부 법무과장 알렉산드르 이도 있었다.

네벨스크의 제1부시장인 드미트리 류브치노브 후보는 투표인의 16표 중 14표로 지지를 받았다.

세웨로쿠릴스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체제 도입

6월 1일 17시부터 세웨로쿠릴스크 시가지에 비상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현재 감염병 역학 상황으로 인해 비상체제가 도입된 가운데 5월 30일 파라무쉬르섬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이들은 치료를 위해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로 이송했다.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22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영주귀국 관련 사업을 현지에서는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맡고 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인터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관련, 사할린주 한인협회 올해 사업에 대해 궁금하여 본사 **배순신** 기자가 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 제가 알기엔, 푸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4월에 유급휴무, 자가격리 등을 선포했을 때 주한인협회의 업무가 급작스럽게 많아졌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 말에 한국에서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측에서 사할린한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서 우리가 4월 내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했냐면 한인 1세와 2세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재 자녀들과 함께 영주귀국할 생각이 있는 1세대는 몇 명인지?'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2세대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정보였죠. 그래서 4월에 1세에 관한 조사를 하고 2세에 관한 정보는 2015년에 3600여 명의 '사할린한인 2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한 부모의 형제를 한 가정으로 하여 영주귀국 희망 2세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약 1500명입니다. 그리고 1931년 전에 출생한 부모의 자녀와 1931년 후(1945년 8월 15일까지)의 자녀수를 따로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 지금 사할린한인 중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문제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고 무엇보다 1세들과 동반가족으로 직계비속1인이 영주귀국할 수 있다는 사항이 2세들 가운데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누

군가는 2세 영주귀국 희망자 명단을 구성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 네, 맞습니다. 영주귀국 동반가족으로 직계비속이 될 수 있다는 특별법의 5조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아요.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도 법에 관해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법에는 영주귀국과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적혀 있을 뿐이죠. 지원 여부의 판정기준, 심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한인협회는 사할린한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이와 관련해 요청 사항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사할린한인'으로 1세만 아니라 세대 구별 없이 모든 사할린동포를 인정해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웬지 최근에 한국에서 사할린 한인 2, 3, 4세를 고려인 동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은 특별법과 관련해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시기상조(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 때가 이르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사할린주한인협회가 가장 먼저 법 관련 정보를 받고 이와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더군다나 양국(러시아와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누구나 명단을 작성하지는 못합니다. 공식 등록된 한인단체 중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체는 사할린주한인협회에게만 있습니다. 특별법과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우



선 지원하는 분들에게서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러시아에 있는 우리에게 이걸 위탁할 것이고, 이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출생증명서 등 여러 서류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지금 사적으로 작성하는 명단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한국의 대통령령이 나올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와 관련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주귀국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2세대들께서는 본인의 출생증명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증명서에 적혀있는 많은 동포들의 이름이 일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모인데도 자녀들의 출생증명서에 다르게 표기되었던 것이 흔한 사실입니다.

-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올해 사할린

잔류 한인들의 일시 모국방문, 영주귀국자들의 역방문 등이 있을 예정인지요?

- 네, 이에 대한 협의가 5월 말에 한국과 일본 간의 잘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확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모국방문, 역방문 계획을 잘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켜봐야죠.

그리고 우리 협회는 사할린 한인 1세를 위한 의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담실 운영지원은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관을 통해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서는 해마다 연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한국 국제 보건의료재단과의 사업은 계속 될 전망인가요?

- 네, 올해 3월 말에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과 협약서를 체결해 재외동포 보건 및 의료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재단과 함께 1세들을 위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 초청진료 사업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처음 실시된 사할린 현지 건강관리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초청진료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현지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올해도 무조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샤호쵸르스크, 스미르니흐, 프라우다, 체호브와 홈스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6월 중순경) 샤호쵸르스크로 갈 예정입니다.

- 그 외 주한인협회는 올해 어떤 기획과 행사 등이 있나요?

- 올 초에 우리 협회는 3가지 장려금 사업을 따냈어요. 하나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사업으로 한국문화에 관한 학생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협회가 사할린국립대와 함께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시대회는 이미 온라인으로 4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을 주 문화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 바로 <한 가정에서>축제 기획입니다. 올해는 이 축제는 코르사코브, 홈스크, 돌린스크와 네웰스크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엑손>컴퍼니가 후원하는 교육 기획을 사할린국립대와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광복절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개최하는 행사 중 하나는 마카로브한인회의 요청으로 지역 역사 연구가인 니콜라이 위쉬넵스키가 집필한 마카로브한인들에 대한 책 출판기념회입니다. 이 행사는 6월 19일 한인문화센터에서 할 예정인데 물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다 지키는 가운데 50명 이내로 초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협회에서 지방 어르신들에게 식품세트를 나누고 있었는데 거의 모두 지방에 전달되었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어르신들에게도 배달이 시작됩니다. 가구마다 배달할 예정이니 문화센터로 오시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어르신들에게 '잘 참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모든 기획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두달 간 10만 개 이상의 위생 마스크를 생산

바느질 공방, 모텔 센터 및 상점을 포함해 26개의 섬 기업들이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법 집행청 사할린주관리국에서도 개인 보호 장비 생산에 동참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이 기업들의 노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전염병 대유행의 특정 단계에서 마스크가 꼭 필요한 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가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생산량을 몇 배 늘렸고, 어렵고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한 중소기업들이 동등한 기여를 했다고 산업통상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연방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돕는 기관 명단에 총 25개 사할린 기업을 포함시켰다.

돌린스크, 홈스크, 아니와, 우글레고르스크, 스미르니흐, 포로나이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쿠릴스크, 오하, 노글리키 구역에 위치한 회사들은 물론,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위치한 회사들도 위생 마스크 생산에 동참했다. 사할린 주정부 보도국은 마스크 및 손

소독제는 주문과 함께 상점 및 약국 소매망을 통해 판매된다고 밝혔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два месяца произвели более 100 тысяч гигиенических масок

Многоразовые изделия изготавливают 26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реди которых – ателье, швейные мастерские, модельные центры и магазины. Также к производству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средств защиты присоединилось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исполнения наказаний РФ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слуги сотруд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могающих бороться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отметило российск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 На определенных этапах развития пандеми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траны столкнулись с проблемой дефицита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 ведь маски стали самым ходовым товаром. Осн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уже кратно нарастили объем их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за работу принялась лег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но не меньший вклад внесли небольшие компании и непрофиль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дключившиеся к решению непростой и важной задачи, – сказано на сайте ведомства.

Всего федер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включило 25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в перечень организаций, помогающих стране в непрост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К производству гигиенических масок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омпани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Долинском, Холмском, Анив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Поро-

най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Охин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ах, а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щитные изделия реализуют через розничную сеть магазинов и аптек, а также под заказ,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цент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청소년들, 잠든 낯선 사람의 집을 침입해 신용카드 훔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3명의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청소년 3명은 무례하게 지역 주민인 50대 남성이 잠든 집으로 침입해 주인이 잠자는 사이 집안을 뒤져 신용카드 2장을 훔쳤다. 이후 인근 상점으로 가 카드를 사용했다.

이 사건은 5월22일에 발생했는데 이 50대 남성이 잠에서 깬 후 자신의 신용카드가 집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 그러나 어디에선가 잃어버렸을 거란 가능성은 곧 접게 되었다. 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하나하나 전송되었는데 시내 각 상점에서 그의 카드로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남성은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자세한 사정을 밝힌 가운데 저녁에 이 남성이 사는 젤레즈다로즈나야 거리 2번지에 3명의 청소년들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다. 청소년들은 집의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 침입해 주인이 잠든 사이 조용히 방을 뒤지다 눈에 들어온 첫 것을 훔쳐 달아났다.

(8면에 계속)

사할린 철도버스들 이름 '오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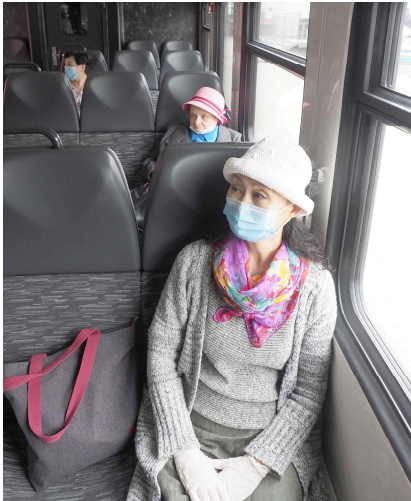
6월 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RA-3 철도버스에 이름을 부여하는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러시아 철도부가 비전기화된 지역들의 시외 교통을 위해 설계된 철도버스는 지난해부터 사할린에서 운행하고 있다. 사할린은 국내 철도버스 도입의 첫 지역이 되었다.

국가 교통 독점권과 사할린 정부는 이 순간을 영구화하기로 하고 철도 전망에 특별히 사할린에서 이름을 짓기로 합의하고 사할린주 정부의 후원으로 이름 공모전이 열린 가운데 '오를란'이란 이름이 우승을 차지했다.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지 1년이 지나고 현재 공식적으로 이 이름이 부여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하바롭스크에서 방문한 극동 철도국 니콜라이 마클리긴 국장이 첫 철도버스 '오를란'을 발차시켰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3세대 철도버스 차량들과 사할린의 철도들도 '오를란'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극동의 다른 지역들을 비롯해 철도망이 전기화되지 않은 국내 많은 지역들에서도 철도버스 도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예식 기자)



사할린주 인구의 5분의1이 아동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첫날은 국제아동보호날로 국제 기념일 중 가장 오래된 기념일 중 하나며 1950년부터 전 세계에서 기념하고 있다. 이날을 맞아 사할린주 통계국에서 통계를 마련했다.

사할린주에는 2020년 초에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사할린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한 96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사할린에는 출산율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2000년도에 출생아는 5천2백 명이었고, 2019년에는 이미 5천8백 명이 출생해 몇 년간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실시로 양호한 지표를 보여주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아동과 자녀를 둔 가정에 국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긍정적인 출산 경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둘째와 셋째의 출산 장려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할린의 가정들을 위해 식품 세트가 확대된 가운데 10월1일부터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가정은 증가한 식생활비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 보조금 규모는 1인당 1900루블리이며, 사할린 북부 지역과 쿠릴 지역에서는 2050 루블리 이상을 받고 있다. 전에는 가정당 2500루블리를 지급했었다.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 중 하나는 매월 아동수당 지급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아동을 위한 국가 보조금이 2만5천735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총액은 4억 1300만 루블리에 달한다. 사할린은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 더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2019년

에는 사할린의 328 가정에서 넷째 아이가 태어났고, 2018년에는 273 가정에서 넷째가 태어났다. 2019년에 144가정에서 다섯째 이상의 자녀가 태어났고, 2018년에는 125 가정에서 태어났다.

2019년 말 주에서는 학교 내 미취학 아동 그룹과 별도의 유치원 법인을 포함해 207개의 미취학 아동교육기관이 운영되었다. 이 기관들은 세부적으로 유치원 교육과 아동 돌봄 및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들이다. 2018년 대비 2019년 유치원 원아의 수는 0.8% 증가한 3만 명에 달했다. 학교는 아동 교육과 훈련의 주요 연결고리이다. 사할린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의 학기 동안 160개 학교가 기능을 수행했다. 일반학교의 학생 수는 5만400명이었고 이 중 1학년의 학생 수는 6천200명, 9학년생은 5천900명, 11학년과12학년생은 2천 900명이었다.

최근에는 지적, 예술적 미학, 도덕성 개발, 체육 문화, 스포츠 및 창작, 과학기술 방면에서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 맞춘 보충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는 가정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사할린주에는 학생들을 위한 해당 허가증을 가지고 보충적 일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260개 교육기관이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방면에서 보충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5만 4700명이고, 이 중 1만1700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주 체육 문화와 스포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사할린 통계국이 전했다.

'한·러 코로나19 대처와 이후 영향' 주제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양국 학자와 학생 등 20여 명 참여해 코로나19가 남긴 사회적 영향 대해 열린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러시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와 향후 바이러스가 남긴 사회적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온라인 학술 컨퍼런스가 5월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베라 비쉬니코바 러시아 고등경제대 학장의 사회로 김영웅(전 소련 연방의회 의원,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등경제대 교수), 예브게니야 콜로디아(이르쿠츠크국립대 한국학과 교수), 엘레나 호롤로바(고등경제대 교수), 최재덕(원광대 교수), 김혜란(고등경제대 교수), 김원일(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등

양국 학자와 학생들 20여 명이 함께 했다.

최재덕 교수는 발표에서 "한국의 코로나 방어 성공은 문재인 정부의 공도 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강화 확대돼 온 건강보험 시스템과 공중방역 시스템의 역사적 성과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김원일 박사는 "한국의 방역 성공은 효율적인 사회 통제 시스템과 유교적 전통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합법적인 권위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한국의 전통적 유교문화가 한국의 방역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면에 계속)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서

십대에는 예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꿈을 꾸곤 했다. 이름도 묻지 못한 이별이 가슴 아파 새벽녘에 눈물을 글썽이며 잠에서 깨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 꿈속의 소녀가 다시 찾아와도 곤란하지만 웬지 아쉽기는 하다.



요즘은 몇 가지 꿈을 돌아가면서 꾸다. 멀쩡하게 제대했는데 다시 군대 훈련소로 끌려가거나, 비행기나 배를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꿈에 가보았던 아름다운 산에 다시 찾아가거나, 사십년 전의 학교 앞 문구점을 찾아가는 꿈이다.

잠결에 나도 모르게 웃음 짓는 건 옛날 문구점을 찾아가는 때다. 1980년대는 한국 남자아이들에게 프라모델의 시대였다. 플라스틱 부품을 조립하여 실물과 비슷한 모형을 만드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다. 수입 프라모델의 반값도 안 되는 국산 프라모델이 넘쳐났고 남자아이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 문구점으로 달려갔다.

학교 앞 문구점 창문에는 프라모델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 있다. 가진 돈은 적고 사고 싶은 건 많아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다 보면 한두 시간이 휙 지나갔다.

문구점마다 파는 물건이 달라서 돈이 없어도 자전거를 타고 여러 학교 앞을 즐겁게 돌아다녔다. 비행기, 전차, 총, 자동차, 오토바이, 군함, 보트 등 갖가지 프라모델을 조립하며 남자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어 진짜 자동차와 비행기를 조종하는 날이 오길 꿈꾸었다.

문구점에서 삼백 원이었던 군인 모형이 대형 마트에서 오천 원이 되는 동안, 국민학생이던 나는 초등학교생의 부모가 되었다. 프라모델의 시대는 갔고 지금 아이들을 열광시키는 건 실물 모형보다는 컴퓨터 그래픽이다.

이제는 인사동이나 홍대앞 장난감 박물관에 가야 오래된 프라모델 상자들을 볼 수 있다. 낡고 헤진 상자들을 보면 눈과 마음이 함께 따뜻해진다. 살아 있었느냐고, 우리 같이 나이 먹고 있다고 찬찬히 쓰다듬으며 인사를 건네고 싶다.

그래도 어딘가에는 옛날 프라모델들이 잔뜩 쌓여 있을 것 같다. 팔리지 않는 프라모델 상자와 함께 빛 바래가는 주인들, 용돈을 모아 달려올 아이들을 기다리며 문구점 밖을 내다보는 노인들과 눈이 마주칠 것 같다.

그런 문구점이 어딘가에 꼭 있을 것 같아서 시골에 가면, 도시 변두리의 초등학교에 가면 옛 문구점 간판을 찾아 두리번 거린다.

광주에서 김남중

사할린주 아동 캠프 및 시설들 가동

(1면의 계속)

아나스타시아 키티와 장관은 "접수 규모는 한 그룹에 15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으며 아동들이 머물 공간에는 방역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설 내에서 대규모 행사가 금지된 가운데 되도록이면 야외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1일에는 '차이가' 시외 건강 개선 캠프가 첫 활동을 시작했다. 6월 한 달간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시외의 다른 캠프들도 아동들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Только РООСК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составлением списков на ПМЖ в РК

Как сегодня живе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кие насущные задачи, планы и вопросы ставит. Об этом наш корреспондент **Виктория БЯ** побеседовала с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Каким был для вас период самоизоляции?

— Весь апрель, когда был период самоизоляции, мы работали. Вы же знаете, что в конце апрел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ерез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 нам обрат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путатов парламента РК,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сь разработкой этого закона. Им нужны были некоторые данные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закона, расчета некоей составляющей.

— Что за данные интересовали корейских парламентариев?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касалось 1-го поколения и 2-го поколения, возможно, кто готов или не готов выехать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реди 1-го поколения мы проводили опрос, кто готов сейчас выехать на ПМЖ, если им разрешат выехать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Сделали анализ данных на основе результатов анкетир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в 2015 г. Обществом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реди 2-го поколения. Как Вы помните, тогда анкетирование прошли более 3,6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Конечно, это анкетирование прошли не вс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2-го поколения.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5000 че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го поколения. Мы сделали срез данных, объединили по семьям (единокровные братья, сестры), вывели среднюю цифру. В итоге, по нашим данным,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на выезд на ПМЖ в Корею могут заявить около 1500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1-го поколения. Именно такую цифру мы представили в парламент Кореи. Причем, мы разделили 2-ое поколение по годам рождения родителей. У нас отдельно идут данные по сахалинцам, чьи родители до 1931 г.р. («настоящее» 1-ое поколение), и детям, чьи родители с 1932 г.р. по август 1945 г.р. (условно 1-ое поколение).

— Сегодня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верное, самый обсуждаемый вопрос — это принятие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езда на ПМЖ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то есть, 2-го поколения. Сейчас усиленно муссируются слухи, что, якобы, разрешен переезд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уже умерли. Говорят, составляются уже какие-то списки.

— Сейчас наших сахалинцев в спецзаконое больше всего волнует пятая статья, в которой говорится о переезде на ПМЖ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и связанном с эти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Хочу заявить, что еще неизвестно, кто и на каких условиях сможет уехать в Корею. Механизм еще не отработан, подписанного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едомств по спецзаконоу нет.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дет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наполнению, мы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отправили в Корею сразу же. В каком виде все будет еще не известно. У нас по этому Закону больше вопросов, чем ответ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шел ответ, что именно РООСКа станет организацией, до которо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ет довед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как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реализация Закона. Ведь именно мы станем организацией, осуществляющей на практике подготовку сахалинцев к переезду на ПМЖ.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 и в России,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существуют Законы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Прежде чем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е о репатриации и т.д., желающие выехать в РК должны будут подписать Соглашение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и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буду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списки и т.д. Мы являемся доверенным лицом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а также единств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на Сахалине, у которой есть право работать с персональными данными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То есть, именно н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сбором согласий (российская и корейская форма). И через нас также будут подаваться заявления на им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И потому,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се разговоры о том, что где-то формируются какие-то списки, просто несостоятельны. Более того, прошу людей, не отдавать кому попало свои документы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рождении и т.д.), это просто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Списки, которые составляются сегодня, не будут нами учитываться.

Спецзакон по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ступает в действие 1 января 2021 г.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рошу вас, потерпите немного. Как только что-то будет ясно, мы вас известим.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мы пытаемся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наши сахалинцы максимально мог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от закон в свою польз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ы хотим, чтобы термин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спространялся на всех корейцев, без деления на поколения. Очень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по гражданству. Кстати,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записываться в какие-то списки, было бы гораздо лучше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своим документам. У многих в свидетельствах о рождении отличается запись имен родителей и т.д.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серьезным препонном в оформлении разреши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разъяснение. И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Будут ли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одиться поездки по лини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посещение родителей в РК, недельная поездка 1-го поколения в РК, поездка репатриантов в Россию и т.д.).

— У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есть такие планы. Они очень надеются, что они осуществятся в этом году. Но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неизвестно, исполнятся ли эти планы. Переговоры коре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ы (переговоры МИД и обществ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и Японии) п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сахалинской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ялись в конце мая. Программы одобрены, теперь

ждем улучшени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Также добавлю, мы продолжаем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ой по поводу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работы медицинского кабинета для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Ежегодно заключается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оплачивается работа персонала медицинского кабинета и финанс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тение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 Хотелось бы также узнать, будут ли в этом году проходить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ива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й Фон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Однозначно да. В этом году мы подписали с Фондом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начали совместно программу помощи пожилым корейцам именно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Он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диагностику, профилактику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и раздачу рис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съездили в несколько районов, в этом году пока что планируем съездить в Шахтерск, Смирных, Холмск, Чехов и Правду. Если получится, то уже через неделю поедем в Шахтерск.

Что касемо поездки 1-го поколения на бесплат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и лечение в РК, то пока неизвестно, как получится. Коронавирус...

— Какие еще проекты и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ются в этом году?

— В этом году мы выиграли три гранта. По ли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проект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ГУ мы провели ежегодную страноведческую олимпиаду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В этот раз она прошла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 Грант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сается поддержки фестив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 семье единой». В этом году мы планируем фестивали в Корсакове, Холмске, Долинске и Невельске. Грант компании «Эксон лимитед» касает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Его мы также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ГУ.

Конечно же, в планах провед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аздника «Дружбы», посвященного освобождению Кореи, юг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дно из ближайших мероприятий — проведение презентации книги о корейцах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автор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историк Николай Вишневский.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йдет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19 июня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мер защиты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А вообщ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ы активно развозили по районам подарки —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для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На очеред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сего было приготовлено более 500 наборов. Выезжая в районы, очень активно общались с бабушками и дедушками, которые выдержали этот нелегкий период самоизоляции. Спасибо им огромное за это.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поднесла новые уроки по борьбе с COVID-19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зарубежные СМИ и эксперты постоянно хвалят Южную Корею за то, как она справляется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Раз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выстраиваются в очередь, перенимая опыт борьбы корейцев с пандеми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а короткий срок страна смогла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огранич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COVID-19 и переломила ситуацию в свою пользу. Вопрос уже стоит в плоскости, когда страна сможет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ть о полной победе над инфекцией.

Однако события последних недель в Корее доказали, что с COVID-19 справиться вряд ли получится "наскоком" и очень быстро. И здесь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итуация опять преподала ряд важных уроков, которые стоит усвоить всем остальным — как с позиции "как надо поступать", так и с позиции "а что бывает, если не следовать рекомендациям". Возможно, что последние даже более ценны, так как позволяют избежать значительных ошибок, изучив "чужие шишки" и не набивая своих.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обобщила ряд этих новых уроков от ситу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и с COVID-19. Они, возможно, в чем-то и очевидны, но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тем самым зеркалом, которое во многом заранее показывает, с чем могут столкнуться другие страны уже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Что может сделать один обманщик

Как известно,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ая локальная вспышк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оизошла в начале мая в квартале Сеула

Итхэвон, где сосредоточ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баров, ресторанов и ночных клубов. Власти уже более-менее справились с той вспышкой, но работа существенно осложнилась из-за поведения одного из зараженных.

В ходе стандартного опроса при сдаче теста на COVID-19 25-летний кореец из города Инчхон, который побывал в клубах, скрыл от властей, что подрабатывает част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заявив, что является безработным. Это не позволило своевременно выявить и быстро изолировать тех его учеников, кого он успел заразить, разгуливая после похода в клубы. Так пошли несколько волн,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появилось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больных — родители школьников, водитель и пассажиры такси и другие. Все было бы иначе, есл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рассказал бы о своей работе и дал возможность отправить на тесты тех, с кем он контактировал.

В местных СМИ этого несознательного корейца сейчас так и называют "частн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ь-врун", его ждет суровое наказание вплоть до пяти лет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Определить, что он солгал, удалось лишь когда родители учеников стали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ризна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отправились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на тесты. По этой обратной цепочке и вышли на педагога, который уже не мог отпираться перед лицом фактов.

(Оконча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КНДР не допустила проникновения COVID-19

КНДР в результате строгих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не допустила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ируса COVID-19 на свою территорию. Это делает её практически единственной страной в мире, избежавшей эпидем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интервью ТАСС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Пока границы остаются на замке, опасности проникновения болезни нет. При этом дипломат отметил, что с этим связан колоссальный вызов. Учёные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проходя через тяжёлые испыта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болезнью, госпитализациями, страданиями и смертями, человечество обретает иммунитет. Есл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то северокорейцы останутся, возможно, единственными в мире, кто, справившись со сложнейшей задачей не впустить вирус, не обретут коллективной невосприимчивости к заболеванию, - отметил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Хон Нам Ги: Трет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30 трлн вон

Трет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30 трлн вон (24,5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больше, чем первые д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бюджета вместе взятые,- заяв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Хон Нам Ги в интервью телевидению KBS.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толь солидные масштабы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готов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правиться с финансовыми проблемами, вызванными пандемией COVID-19. Хон Нам Ги отмет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до конца года внедрить универсальную систему страхования занятости, чтобы всё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ое население в случае потери работы могло получать пособие по безработице. Вице-премьер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планиру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новые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населению страны.

КНДР хочет включить гору Пэктусан в сеть глобальных геопарков ЮНЕСКО

КНДР прилагает усилия для включения горы Пэктусан на севере страны в список глобальных геопарков ЮНЕСКО. Как сообщило в воскресень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 помощью многолетн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экспериментов учёные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бластях собрали научн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богатого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и геологической ценности горы Пэктусан. В 2018 году Комиссия КНДР по делам ЮНЕСКО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 подаче заявки на включение горы Пэктусан в сеть глобальных геопарк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аявк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Геопарк - это территория, на которой наглядно раскрывается геолог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Земли, формирования местных ландшаф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пород и месторождений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ЮНЕСКО по созданию сети глобальных геопарков действует с 2002 года.

До 14 июн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вводится усиленный карантинный режим

До 14 июн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вводится усиленный карантинный режим, чтобы остановить дальнейш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COVID-19. Речь идёт о возвращении в города Сеул, Инчхон и провинцию Кёнги-до режим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четверг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Пак Нын Ху. Он отметил, что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кты, в том числе музеи и театры, будут закры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частным компаниям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ерейти на гибкий график работы и по возможности работать в удалённом режиме,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большого скопления сотрудников в офисах.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ется закрыть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такие как бары и клубы. Если до 14 июня не удастся вернуть контроль над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будет введён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Кроме того, график возобновления занятий в школах может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 - отметил Пак Нын Ху. Решение об усилении карантинного режима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было принято из-за резкого роста числа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В логи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а Coupang в городе Пу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ыявлены 69 заболевших, и карантинные органы ожидают дальнейшего роста числа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число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связанных с очагом в ночных заведениях сеу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тхэвон.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день 27 мая, их число достигло 259 человек. Ранее в стране действовал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о 6 мая он был заменён повседневным карантином, поскольку эпиде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е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сь.

(RKI)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поднесла новые уроки по борьбе с COVID-19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Что бывает, если попытаться сэкономить на антивирусных мерах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 произошло полноценной "второй волны"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 то здесь, то там вспыхивают отдельные очаги. Один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возник в логи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крупной компании электронной торговли Coupang в городе Пучхон, что недалеко от Сеула.

Как теперь выясн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этому центру еще долгое время сильно везло, там было до этого все спокойн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соблюдению дистанции между сотрудниками, актив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антисептиков, перчаток, рассадке по отдельности в столовых, где обычно скапливалось по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человек - этого ничего не делалось. Сотрудники, у кого были тревожные симптомы - кашель, температура и прочее -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продолжать выходить на работу, опасаясь увольнений. Начальство же не хотело давать рекомендованных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властями трех-четырёх дней отдыха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с симптомами.

Доходило и до того, что обрабатывали грузы сотрудники в специальной защитной одежде, как этого и требовали правила, но сами комплекты одежды не был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ми, а просто передавались следующим сменам. То есть, все делалось "для галочки". Результат - более сотни заболевших, а медики сбиваются с ног, "отлавливая" всех тех, с кем успели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ки компании и проверяя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авральном режиме.

То же само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о некоторых других ситуациях. Вспышки, хотя и меньшего масштаба, произошли в караоке, барах, церквях и других заведениях.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ывают: где не соблюдались правила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 там в итоге и случался "прорыв".

Эффект "черта из табакерки"

Примерно месяц назад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и осторожно просчитывать дату, когда можно будет заявить о полной победе над коронавирусом. Но в итоге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ь рано. Экспертов беспокоит, что есть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лучаев вспышек, когда не удается выяснить, как и откуда появился вирус. Когда открывали бары и другие заведения типа ночных клубов, то конечно же опасались, что могут произойти новые заражения из-за повыш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людьми, но есть и ряд случаев, когда COVID-19 возникал в совершенно неожиданных местах и там, где он, казалось бы, не должен быть. Эксперты сейчас говорят,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мы еще недостаточно знаем COVID-19, и он оказывается более коварным и устойчивым, чем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первоначально.

Вирус не так уж непобедим, если помнить о его присутствии

Есть и положительные уроки. Вернемся к той же истории про частног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оторый скрыл свое место работы и контакты. Когд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он заразил трех учеников, то стали проверять, с кем общались те ребята. Оказалось, что дети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часов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воскресных богослужениях в церквях, гд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780 человек.

Это заставило мног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хватиться за голову, так как мог возникнуть куда более мощный очаг. Быстро проверили всех посетителей церквей, где побывали уже зараженные дети, и получили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ому удивились - среди прихожан не было выявлено ни одного нового больного.

Проверка камер наблюдения, опрос пасторов и прихожан показал, что в тех церквях строго следили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рекомендованных мер: все поголовно были в масках, пользовались санитайзерами, перчатками, личное общение по просьбе священников было минимизировано, а между прихожанами на службах было значительное расстояние. Это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ирус не такой уж непобедимый, надо просто помнить и соблюдать минимум рекомендованных мер.

Для сравнения приведем "антипример": тому самому "преподавателю-вруну" хватило одной минуты общения, чтобы заразить одного из школьников. А все потому, что оба были без масок. При этом, повторим,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рисутствия в церкви, но в масках и с соблюдением иных мер позволили избе-

ж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Метод "газовой горелки"

После возобновления вспышек в Сеуле, Пучхоне, Кояне и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пошли на "откат назад": с 28 мая были повторно введены более жесткие меры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ю, от которых попробовали отойти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назад. Вновь в столичном районе закрылись клубы, музеи, библиотеки, многие спортивные центры и иные заведения. Но в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где не было вспышек, те же клубы работают с соблюдением более жестких правил посещения, хотя и до первого случая заражения.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с 27 мая стали частично возобновлять учебу в обычном формате с личным посещением, но несколько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заставили более 800 школ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возобнов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по Интернету.

Сейчас в Корее,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разно, действуют по методу "газовой горелки", когда огонь можно регулировать, а не выбирать между потушить или запалить "на полную катушку". Как видно, приходится действовать и в обратную сторону, если выходит, что послабления оказались преждевременными.

Это наверное надо помнить и другим странам: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что после ослабления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может создаться ситуация, когда их придется снова вводить (хотя бы частично),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повторного полноцен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ша жизнь, возможно, никогда не будет прежней

Сейчас хватает прогнозов и предсказаний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ак мы будем жить в "посткоронавирусную эпоху". В Корее же склоняются к выводу, что пока не будет изобретена эффективная вакцина, сложно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расслабиться. Судя по событиям последних дней регулярно будут "пробои" в тех или иных местах, что будет держать в напряжении всех.

В этой связи, скорее всего, неизбежным будет то, что нам придется привыкнуть к новым правилам, которые станут частью нашего обыденной жизни. Речь идет о более строгих мерах по дезинфекции, гигиен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и контроля.

Столкнувши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буквально "отлавливать"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осле вспыш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ночных клубах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квартала Сеула не торопились признаваться в посещении клубов и не шли сдавать анализы, власти Кореи сейчас вводят новшеств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быстро отслеживать "группы риска". В частности, в ряде мест, где ожидается скопление людей, для захода обязательным становится получение и регистрация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го QR-кода, где будет храниться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сетителе и его данные. Власти обещают, что в целях пресечения утечки личных данных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удаляться через четыре недели, но подобные меры скорее всего станут повсеместны и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неизбежны.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в Корее число новых заболевших каждый день колеблется на уровне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хуже тех почти победных цифр, которые были еще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назад, когда в самой стране были дни и с нулем новых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это явно не катастрофа, 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и медики вновь доказали, что имеют эффективную систему реагирования и более-менее успели "прижать" COVID-19 и пока не допускают повторной волны коронавируса. Можно быть уверенным, что корейцы сумеют вновь вернуться к более приятным показателям, но будут уже более опытными, понимая, как стоит реагировать дальше. Другим же странам, куда COVID-19 пришел позже, чем в Южную Корею, остается внимательно наблюдать за ситуацией в Стране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еренимать опыт, уроки, так как похожие проблемы или вопросы скоро будут возникать или возникают 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ситуац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 это зеркало недалекого будущего других,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плане коронавирус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ценил значимость предстояще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поправкам в Конституцию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ъявил дне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1 июля – он станет выходным. Президент попросил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и ЦИК РФ удел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улучшени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 что ближайший месяц будет посвящен подготовке к этому значимому событию. Первостепенная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 условии соблюдении всех санитарных требований позволяет провести голосование без угрозы для здоровья людей.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будут голосовать за неотделимость территорий. Э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так как постоянно поднимается тема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Мы будем голосовать также за социальную стабильно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которой еще острее показала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Мы все должны чувствовать,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заботится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потеряли работу, о пенсионерах, семьях с детьми и обо всех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х слоях населения. Сейчас самое время на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уровне закрепить эти и другие гарантии, чтобы их впоследствии никто не мог отменит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Владимир Путин 15 января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дложил ряд важных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В частност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ступил с инициативой введения запрета на иностран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для высши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усиления роли парламента, губернаторов и Госсовета, предложил закрепить нормы о верховенстве Конституции в правов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РФ. Он также заяв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ежегодной индексации пенсий и закреплении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оплаты труда на уровне не ниж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Поправки были приняты Госдумой, одобрены Советом Федерации, поддержаны региональными парламентами, признаны законными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судом РФ. Изменения вступят в силу посл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а лососевая путина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нозируемый объем вылова красной рыб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ставляет 91 тысячу тонн. Из них 46 тысяч тонн горбуши и 44 тысячи тонн кеты, что пример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бъемам 2019 года.

Сроки начала и окончания промысла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ссии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бычи (вылова) анадомных видов рыб.

Так, с 1 июня добыча лосося разрешена предприятиям,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на побережье юг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от мыса Погиби до мыса Крильон). Это компани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и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ов. Объем рекомендованного вылова для этого участка составляет 1100 тонн горбуши и 770 тонн кеты.

– Сейчас предприятия готовятся к промыслу – получают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ылов и устанавливают ставные невода. Рыба еще не подошла. Первые уловы традиционно ожидаются в 10 числах июня. Планируем, что предприятия успешно работают и смогут взять рекомендованный для них объем вылова,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С 16 июня к промыслу приступят компани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Рекомендованный объем вылова там составляет 6,5 тысячи тонн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из них – 3 тысячи тонн горбуши, 1,5 тысячи тонн кеты, 1,4 тысячи тонн нерки и 400 тонн кижуча.

Сахалинский «Орлан» отправился в путь по железным дорогам страны

Теперь так называются все поезда новейшей модификации РА-3, работа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присвоении наименования рельсовому автобусу началь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иколай Маклыгин передал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2 мая на платформ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вокз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Здорово, что теперь жители и гости нашей области могут домчаться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Корсаков и Дальнее или из Холм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Томари на поезде с красивым, говорящим названием – «Орлан»,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 Это имя выбрали сами сахалинцы.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ходило у меня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вызвало у подписчиков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Орлан» стал лидером среди 100 вариантов.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нов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рельсового автобуса проходило с 16 по 30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Среди популярных названий также были: «Сивуч», «Снегирь», «Косатка», «Восход», «Три брата», «Медуза», «Мотриса», «Дельфин» и «Чайка». Всего в опросах на официальных страницах губернатора 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участвовали более 6,5 тысяч человек.

– Орлан – гордая, сильная и красивая птица. В этом мы, сахалинцы, с ней похожи. Одобряю название и желаю рельсовому автобусу счастливых полетов, – заявил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ячеслав Приходько.

Новый вид транспорта начал курсировать по Сахалину осенью 2019 года, после перешивки узкоколейк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РА-3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остров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зготовили в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вагона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ондиционер, светодиодное освещение, обеззараживатель воздуха, две санитарные комнаты.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людей отвечают система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пожарная и охранная сигнализации.

О преимуществах новых вагонов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и пассажиры рельсового автобуса на рейсе в Хомутово.

– Я регулярно езжу в гости к своей подруге, которая живет в другом конце города. Раньше пользовалась обычным автобусом, а теперь – рельсовым. Разница, конечно, впечатляет. Очень комфортные сидения, большое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креслами – можно даже ноги вытянуть. Работает практически бесшумно. И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деталь – поезд тронулся, а я даже этого не заметила. Никаких стуков и резких движений,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Галина Волосович.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л первым в России, где нач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у модель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Еще три рельсовых автобуса приобретут для Сахалина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нашу эффективную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Обновляем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перешиваем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под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и туристы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ьзоваться современным и комфорт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иколай Маклыгин.

1 июня рабочие приступили к перешивке последнего на Сахалине узкоколейного участка Холмск–Шахты. Полностью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завершат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Сад памяти» разраста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стровах полным ходом иде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экологическая и 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акция, приуроченная к празднованию 75-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Она посвящена памяти тех, кто отдал жизнь за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ашей Родины.

В рамках акци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садить 27 миллионов саженцев – по числу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лее 11 тысяч штук молодых деревьев и кустарник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очти 6 гектаров. Посадку проводят не только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но и в лесном фонде.

К акции, которая продлится до 22 июня, уж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нив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районы. Памятные аллеи появились также в Курильске и Рейдово Кури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Отметим, что посадка саженцев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с учетом эпидем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в масках и перчатках, соблюдали нужную дистанцию.

Большая часть выполненных работ пришлась на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мая, когда окончательно растаял снег.

Так случилось и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29 мая работник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областному минэкологии Поронайского лесничества вместе с ребятами из школьного лесничества «Первоцвет» (МБОУ СОШ № 1 г. Поронайс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Сада памяти» в лесном фонде. В память о погибших воинах было высажено 750 штук ели аянской. Сеянцы были безвозмездно предоставлены питомником «Восточного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стоится посадка саженцев в лесном фонд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и Охинского лесничест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ервая в стране начала летнюю оздоровительную кампанию для детей

1 ию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крылись детские лагеря. Всего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на каникулах доступны более 300 учреждений разного типа, где смогут отдохнуть более 50 тысяч ребят.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летней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5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сь 32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пр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В школе № 7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 началом летнего отдыха ребят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 традиции летня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стартует первого июня.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сложн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было непросто организовать ее в эти сроки. Но мы это сделали, причем первыми в стране.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ребята смогли хорошо отдохнуть, весело и с пользой для здоровь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Безусловн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м уделять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бят, соблюдению санитарных требований. Думаю, что это никак не отразится на качестве самого отдыха. Он будет как всегда насыщен интересными событиями.

Школьниц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силиса Медведова очень рада, что вновь может вживую общаться со своими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 Мы так долго не виделись со своими друзьями, устали сидеть на карантине. Здорово, что сейчас все вместе бегаем и играем, делимся эмоциями, – сказала девочка.

Всего в островных школах и друг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летом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около 290 лагерей 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путевок в них – от 2 до 17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же откроются более 20 палаточных лагерей и 40 лагерей труда и отдыха.

Первым из шести стационарных загородных лагерей свои двер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откроет «Чайка». После 15 июня заработают «Лесное озеро», «Юбилейный», «Юн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Сахалинский Артек» и «Восток».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места детского отдыха посетят более 3,6 тысячи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Напомним, электронный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в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Юбилейный», «Лесное озеро» и «Чайку» – проводился с 1 февраля. Путевки распределили по все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 Дет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х предоставили бесплатно. Для остальных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родители оплачивают только 15 процентов стоимости отдыха – от 7 до 1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цена путевки варьируется от 53 до 70 тысяч рублей.

Отметим, с 29 ма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ет единая «горячая телефонная ли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организации летнего отдыха детей.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абочие дни с 9 до 17 часов по телефону: 8-800-201-58-10.

С 30 августа по 4 сентябр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молодежны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слет «ОстроVa 2020»

С 1 июня открылся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самом масштабном форуме осе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ся россияне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35 лет. В программе слета – более 100 активносте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призванных повыси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ля молодежи и рассказать о ро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обытия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Центра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лета – одноимен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2020», включающий шесть треков, гд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дискуссии и выступления экспертов. В направлении «Острова Будущего» молодежь на пример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роектирует, как она видит будущее и ч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уже сейчас, чтобы сделать его осязаемым. «Острова Победы» – это обсужд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рошлого и разработка новых форматов для диалога о Великой Победе с молодежью. Участниками трека станут лучшие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из разных частей стран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в проведении парада Победы на Сахалине. На «Островах Мира»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 что такое гражданский патриотизм и в чем он проявляется. «Острова Впечатлений» помогут определить, чего не хватает для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молодежного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и. «Острова Перемен» призваны максимально эффективно интегриро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молодежных форумов в дальнейш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помогать со стартом инициатив. На «Островах Медиа» эксперты в журналистике, PR 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ях научат транслировать сложные и неоднозначные смыслы,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территории.

Кроме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авторские экскурси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и арт-фестивали, концерты, творческие субботники,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зрелищных событий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станет перва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боя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11-12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искового лагеря, работа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вестись по местам боев в районе 50-й параллели.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на слете станут участниками открытых уроков от Волонтеров Победы и присоединятся ко второму этапу конкурса сочинений «Без срока давности». Творческое состязан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честь 75-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Работы 17 победителей первого этапа ранее озвучили артисты Чехов-центра.

Организаторы форума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проводится до 20 июня 2020 год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www.ostroVa2020.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靑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 103개국 3만174명 재외국민 귀국"

1월 우한 교민 시작으로 군용기, 전세기 등 통해 귀국시켜…일본과도 귀국 협력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5월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103개 국가에서 3만 여 재외국민이 고국 땅을 밟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외국민 귀국 지원은 지난 1월 코로나 19 발원지 중국 우한 교민 귀국 지원에서 시작됐고, 아프리카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2개국, 동북아 2개국 등 총 103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3만174명이 귀국했다.

정부의 귀국 지원은 중국 우한 재외국민 귀국 사례처럼 군용기를 포함해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과 전세기 투입 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본과 페루의 재외국민들은 2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해 귀국했다.

정부가 전세기를 임차한 사례는 모두 6차례로, 중국과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에서 1,707명이 귀국했다. 전세기 투입 외 방식으로는 99개국에서 2만8,467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중 국제항공편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정부와 교섭을 통해 임시 민간항공을 성사시켜 귀국한 사례는 20개국 1만5,802명이다.

이 중 한국 공관에서 항공편을 확보해 교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29개국에서 804명이 귀국길에 올랐으며, 상대 국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을 보내는 임시 항공편과 예외 입국을 인정한 한국 기업인들의 임시 항공편과 연계하는 방법으로는 각각 9개국 2106명, 3개국 537명이 귀국했다.

또 윤 부대변인은 "정부가 주선했던 임

시항공편에 23개국 외국인 439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대로 48개국에서 한국 국민 773명이 외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기를 통해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국민의 귀국을 돕는 데 협력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해 마련한 임시항공편에 일본 국민이 탑승한 사례는 13개국 250명이다. 반대로 일본 정부가 주선했던 항공편에는 한국 국민이 13개국 100명이 탑승했다.

지난 5월 20일에는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 전세기를 통해 에티오피아에서 교민들이 귀국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에도 한국 기업인의 예외 입국 사례가 12개국 6,74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 등이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한중 간 신속통로 제도가 빛을 발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중 간 기업인 교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한중 신속통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은 5월 15일 기준 467명이었고 일주일 지난 5월 22일엔 1,24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는 지난 4월 143개사 340명이 입국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들 기업 중 82%인 127개사가 중소, 중견기업이었다"며 "베트남 투자가 중소, 중견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기업인 이동제한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우리 경제인의 대외 경제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2020.05.25)

'한·러 코로나19 대처와 이후 영향' 주제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3면의 계속)

김영웅 교수는 "러시아도 한국과 같이 무료검진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미국과 서방, 중국,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코로나 방역 실패로 국민적 인기가 많이 하락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다"며 "러시아가 감염자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매우 적은 1% 정도에 머무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 공중보건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김영웅 교수는 "예전 자유주의적인 서유럽에 비교해서 사회주의 집단주의 영향권 안에 들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 학자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700만 넘는 인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러시아는 이미 1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했으며 지금 그중에 9만 병상만 이용 중이다.

예브게니아 콜로디아 교수는 "한국은 전국민을 상대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러시아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학자들은 "러시아의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와 한국의 유교적 집단주의는 유사한 점이 많고 이것은 코로나19 방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사회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으로 재평가 받고 부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보다 나은 세계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 스페인독감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했을 때도 그런 예측이 있었지만 스페인 독감 이후 몇 년이 지나자 모두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 똑같은 세계가 펼쳐졌다"며 대체적

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 최재덕 교수는 "올해는 한러수교 30주년으로 뜻깊은 해이고 양국무역액 300억 달러 돌파를 기대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고 양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조속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러시아 발표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육시스템과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러시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베라 비쉬니코바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주의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패권적 세계화가 아닌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해 국가들이 서로 공조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식의 새로운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영웅 교수는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한 지도자가 통 크게 추진해나갈 때가 되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조언했다. 컨퍼런스를 마치며 양국 학자들은 "한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세계도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원일 박사는 "한국과 러시아 학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매우 의미 깊은 컨퍼런스였다"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한러 관계 30주년의 의미가 현재 많이 퇴색했지만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후 관계 발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전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2020.05.27)

[우리말로 깨닫다]

되풀이의 미학

'되'가 접두사로 쓰일 때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돌다'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되감다'라든가, '되돌아가다' 등에서 다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되-'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나 공간을 떠올려 봅니다. 언제 어디로 다시 가고 싶은가요?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돌아가는 것이 한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는 '되풀이'라고 합니다. '되풀다'는 다시 풀다는 의미입니다. 묶인 것을 다시 풀다는 의미로 사전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무엇을 다시 풀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되풀이의 힌트를 어릴 적 기억에서 찾았습니다. 기억이랄까, 추억이랄까 아련하면서 애뜻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되풀이라는 단어와 다시 푸는 장면을 보면 말입니다.

제 기억 속에 다시 푸는 장면은 털실로 짠 옷을 푸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재활용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진정한 재활용은 털실로 짠 옷을 풀어서 새로 옷을 짜는 일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언니의 옷을 풀어 동생의 옷을 짜기도 합니다. 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짜기도 하고, 새로운 실을 섞어 전혀 다른 색으로 조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스웨터가 목도리가 되기도 하고, 장갑이 되기도 합니다. 털실의 온기는 좀 식었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온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겨울밤 일을 마친 엄마는 자연스레 일감을 갖고 앉고 시고 늦은 시간까지 일은 되풀이됩니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고, 엄마도 덩달아 크게 웃습니다. 어쩌면 다시 풀어놓은 실은 우리 식구의 웃음소리와 함께 짜서 더 따뜻했을 겁니다. 살림에 여유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한 것이겠지만, 사람마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추억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아내가 뜨개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제 추억도 되풀이 됩니다.

시간은 세월이 되어 지나가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되풀이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아니어도 되풀이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되풀이하고 싶은 게 무엇가요? 반복해도 지겹지 않고, 오히려 그리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되풀이했을 때 도리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무엇인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올 만한 답은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 들던 노래는 되풀이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가사도 다 기억나고, 때로는 그 노래를 들던 카페도 기억이 납니다. 함께 들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죠. 음악은 되풀이해서 들을수록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다시 보고 싶은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풍경도 있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영상은 가끔씩 다시 보면 그리움이 됩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 그 때 보았던 풍경은 영상보다 더 짙게 마음에 남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는 있는가요? 여러 번 본 영화가 있는가요? 배우를 좋아하면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언어 공부 때문에 여러 번 본 영화가 있는데 오랜만에 보면 언어를 배우던 시절의 추억도 함께 떠오릅니다. ‘러브 스토리’가 저에게는 되풀이해서 보는 영화입니다. 대사가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수없이 반복하여 보고 들었고, 그 때는 대사를 많이 외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련한 추억입니다. 가끔 해외에 나갈 때 비행기 영화 목록에 러브스토리가 있으면 무조건 봅니다.

다시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도 우울할 때, 적적할 때 기운 나게 하는 되풀이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책도 좋습니다. 여러 번 본 책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제게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의 강의를 옮겨놓은 책을 좋아합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쓴 책이라면 언제나 되풀이해서 읽어도 기쁩니다.

여러 번 되풀이하면 안 보이던 곳이 보이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은, 아니 언제나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털실을 풀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풀이가 늘 그림고 고맙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홈친 신용카드를 비접촉식 결제 방식으로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했다. 경찰이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기까지 이들은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돈처럼 카드를 사용했다.

사할린 내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홈친 카드로 구매한 상당한 가격의 물건들은 압수되어 형사사건 증거물로 첨부되었다. 이 청소년들의 행위는 형법 제159조 3항 2호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갈취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었다.

Подрост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шли домой к спящему незнакомцу и прикармливали кредит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изошел инцидент с участием троих подростков. Молодые люди бесцеремонно зашли в гости к 50-летнему местному жителю, пока тот спокойно спал, обыскали коридор и прикармливали две кредитки. После чего пошли тратить деньги в местных магазинах.

История произошла 22 мая. Сахалинец, проснувшись, обнаружил, что из дома пропали все кредитные карты. Возможность того, что они куда-то затерялись, он сразу же отменил — на телефон одна за одной начали приходить смс о том, что его деньгами кто-то расплачивается в разных магазинах города. Мужчина сразу же обратился в ближайшее отделение полиции,

где выяснили детали истории.

Оказалось, что тро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вечером находились в районе улицы 2-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где проживает мужчина. Убедившись, что входная дверь не заперта, а хозяин спит, они тихонько прокрались в коридор и похитили первое, что попало на глаза. Кредитки были с функцией бесконтактной оплаты, и можно было без пин-кода делать небольшие покупки.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часов молодые люди пользовались чужими деньгами как своими, закупаясь в одном из торговых центров, пока не были остановлены сотрудниками полиц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которое имущество, которое имело весомую ценность и было куплено за чужой счет, изъяли и приобщили к материалам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Поступок молодых людей будут расценивать в рамках части 2 статьи 159.3 Уголовного кодекса — мошенничество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электронных средств платежа, с причинением значительного ущерба гражданину.

러시아인의 ½이 코로나바이러스 19 백신 접종을 원한다

전러시아설문조사연구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19 백신 접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백신 접종을 자발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1/5은 백신의 효능이 입증된다면 의무적 접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백신이 효능이 입증될 경우 러시아인의 59%가

자신과 친척에게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많은 남성들은 백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연령상으로는 18세-24세의 청년들과 45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가 압도적으로 많다. 동시에 응답자의 1/3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했다. 백신의 생산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 대부분이 무관심했고 응답자의 47%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12%는 외국 백신을 접종하길 원했다.

Каждый второй россиянин сделал бы прививку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ВЦИОМ выяснил, как относятся жители России к вакцинации против Covid-19.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опрошенных считают, что прививку должны делать в добровольном порядке. Однако есл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акцины будет доказанной, то каждый пятый респондент не против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на обязательной основе.

59 процентов россиян при той же доказан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наверняка сделали бы прививку себе или своим родным. Готовы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больше мужчины, а если брать в расчет возраст —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от 18 до 24 лет и людей старше 45 лет. В то же время почти треть респондентов не стала бы 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К тому, где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а вакцина, больше трети опрошенных остались равнодушны. Однако 47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предпочли бы препарат, разработанный в России, и только 12 процентов хотя бы вколоть себе иностранную прививку.

(사할린주,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